

INVENTION 365

3

24시간 태양발전소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몇 천년을 써도 고갈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대상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러나 흐린 날이나 태양이 없는 어두운 밤에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단점이다. 그런데 밤에도 태양열 발전을 하게 됨으로써 24시간 발전하는 태양발전소가 건설되었다.

솔라 투(solar two)라고 불리는 이 발전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다켓 근처에 있는 10메가와트의 솔라 원을 개선했는 것으로 낮에 태양열을 흡수하여 밤이나 흐린 날이면 며칠 동안이라도 열을 방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발전소는 태양을 따라 움직이는 태양 빛 반사경으로 태양빛을 중앙탑 꼭대기에 모이게 하여 집중된 태양광이 혼합물을 섭씨 1050도로 가열하여 이것으로 물을 끓여 발전기를 돌린다.

이중팬티

은 세계 남자들이 입고 있는 팬티는 거의 대부분 앞부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출입구가 있다. 누가 이 편리한 구조의 팬티를 발명했을까? 이중팬티의 발명기는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일본의 어느 새색시였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그녀의 발명으로 샐러리맨이던 남편은 유명한 의류가공업체의 대표가 되었고, 자신도 발명가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어느 날, 옷가지를 개키고 있던 새색시는 남편의 속옷 출입구가 단추에 의해 개폐되도록 만들어진 것을 발견하고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팬티에 대한 연구에 진전이 없어 고심하던 그녀는 남편이 이중으로 된 양복깃 사이로 손을 넣어 양복 안주머니 속에서 지갑을 꺼내는 것을 보고 힌트를 얻어 이중팬티를 발명하게 되었다.

6

5

익은 과일 고르는 첨단장치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포도나 참외가 막상 먹어보면 시큼한 것이 있고, 커다란 수박도 쪼개보면 덜 익은 것이 있다. 이렇게 겉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과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꿀탕을 먹기 일쑤이고, 판매하는 사람도 난처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첨단 장치가 개발되어 맛있게 잘 익은 과일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미국 퍼듀 대학의 과학자들이 발명한 이 장치는 MRI(자기공조화상)라는 첨단의료 기술을 간편하게 개조한 것으로 과일의 익은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다. 들고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이 기계는 자장을 이용하여 과일과 야채 속에 들어있는 당의 수준을 알아내서 알맞게 익은 과일만 찾아내도록 되어 있다. 이 장치는 생산자들에게도 적절한 수확기를 알려주어 일석삼조이다.